

# 애독자 여러분, 지난 한 해 동안 감사했습니다!

해마다 연말이 되면 '시간은 유수(流水)처럼 잘도 흘러간다'는 사실을 한층 실감하게 됩니다.

'새 출발 여정, 새날 새 희망을 꿈꾼다'는 커버 스토리를 담아 2017년 [연합이매진] 첫 호를 출간한 것이 엇그제 같은데 어느덧 올해도 마지막 호를 내놓았습니다.

[연합이매진]은 이번 호로 지령(誌齡) 440호를 기록했습니다.

화보집 성격인 월간 [세계]로 이 세상에 처음 나온 때(1981년 5월)를 기점으로 따지면 36년 하고도 6개월이 넘는 기나긴 세월을 독자 여러분과 함께한 것입니다.

창간 후 몇 차례 제호가 변경되긴 했지만 여행과 레저, 문화를 주제로 하는 잡지의 기본 성격을 줄곧 유지한 채 2010년 3월 호부터 현재의

이름으로 재탄생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.

불혹(不惑)을 향해 달려가는 [연합이매진]의 든든한 버팀목은 예나 지금이나 전국 곳곳의 애독자 여러분들입니다.

애독자분들께서 주시는 격려와 과찬의 말씀은 저희 제작, 편집진에 언제나 큰 힘을 불어넣습니다. 값진 제언은 아이디어의 창고가 되기도 합니다.

또 매의 눈으로 잡지 구석구석을 살펴보고 던져주시는 따끔한 지적은 완벽한 콘텐츠 생산에 대한 제작진의 심지를 더욱 굳게 합니다.

이 자리를 빌려서 지난 한 해 동안 애독자 여러분이 업서에 정성스레 적어 주신 소중한 의견을 일부 소개합니다.

“군대에서 틈틈이 구독하고 있습니다. 최근에는 전년도 잡지도 즐겨보고 있습니다.” (원○남·제2수송교육단)

“이매진을 읽는 동안 폭염 주의보와 8월의 무더위도 잊고 있었네요.” (양○남·서울 서대문구)

“전체적으로 깔끔하고 세련된 기사로 잘 정리된 느낌입니다. 주위 사람들에게 (이매진을) 널리 알리고 홍보합니다.” (김○남·울산시 북구)

“국내외를 두루 구경시켜주는, 돈 안 들고 여행하게 하는 여행 백과대사전 같은 좋은 책” (김○남·서울 방학동)



“멋진 사진에 글을 읽으면 여행을 하고 있는 기분 같아 행복합니다.” (곽○남·세종시 달빛로)

“(연합이매진)의 다양한 주제와 사진으로 간접체험을 할 수 있어 늘 감사합니다.” (김○남·경북 안동)

“이매진에 실린 기사들을 크게 복사해 고객 휴게실에 붙여 놓고는 하는데 고객들의 반응은 물론 우리 은행의 이미지도 좋아졌습니다.” (왕○남·전남 여수)

“일할 때 잠시 짬을 내어 연합이매진을 보면 힐링하는 시간이 됩니다.” (정○남·경북 구미)

“잡지를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화질이 너무 좋아서 마음에 드는 사진은 스크랩해 두기도 합니다.” (배○남·경남 창원)

“연합이매진을 펼치면 가슴이 활짝! 시원합니다. 돈 들이지 않고 다리 아프지 않게 앉아서 국내외 명승지, 먹거리, 볼거리, 축제, 삶의 풍속도 등등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 보고(寶庫).” (이○남·경기 성남)

“(5월호 [걷고 싶은 길 코너]에서 다룬 [다도해 비경과 동행 '화대 갯길]을 거론하며) 어머니! 저희 여수가 나와서 놀랐습니다. 여수를 이렇게 아름답게 매거진 속에 수놓아 주시다니... 고맙습니다.” (김○남·전남 여수)

“저희 객장 손님이 이매진 잡지를 매월 초 찾으시며 꼭 읽어보라고 추천해 주셨어요. 한번 읽은 후로 매달 새로운 정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.” (권○남·세종시 조치원읍)

“읽을거리 볼거리가 가득해서 좋습니다.” (송○남·대구 수성구)

“문화, 여행, 역사 등 다양한 주제가 있어 취향에 의해 선택되지 않는 매거진. So Good!” (이○남·세종시 갈매로)

“다른 잡지에 비해 사진이 멋집니다.” (최○남·인천 남동구)

과분한 칭찬과 더불어 저희들이 새겨들을 제언을 주신 분도 적지 않습니다.

경남 김해에 거주하는 김○남은 “아이와 함께 이매진을 보곤하는데 아이에게 흥미를 줄 수 있는 아이템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”고 하였고, 서울 반포2동의 김○남은 국내외 여행정보를 더 보강했으면 한다고 주문했습니다.

안○남(세종시 모과나무1길)은 “어떤 기사는 더 자세히 다루면 좋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든다”는 의견을 보내오셨습니다.

박○○님(대구 달서구)은 11월 호 낱말퀴즈 가로문제 영역에 있어야 할 4번이 세로문제 영역에 들어간 것을 찾아내 지적해 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

저희는 앞으로도 독자 여러분의 끊임 없는 성원과 질정을 기다리겠습니다. ♡

**[연합이매진] 편집진 일동**